

2017년 5월 27일, 성산읍 신양리 오성홍 씨 댁, 송정희 조사.
오성홍(남, 1927년생, 성산읍 신양리)

- 줄거리: 새벽에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외발로 서서 있는 도깨비를 보고 놀랜 아버지가 넋을 들여서 병이 나았다고 한다.

[제보자] 도체비가 즐꽃데 오다그네 파지직허민, 그때 그 사름이 놀래부는 거라. 놀래민 그때 넉낫젠 허멍, 이제 넉도 들어보고 심방도 돌아당 헤보고 그거죽 뭐뭐. 흔적 이 엊어. 도체비 심엉 게와에 낭 오랏자 엊어. [웃음]

[조사자] 도체비 봉 놀랫저 허는 얘기는?

[제보자] 놀랫저 허는 얘기는이 바당에 하영 뎅기주게. 이디 사름이 불이 편쩍허게 나오민 놀래그네 우리 아바지네도 듬북허레 오랏단. 그거 전봇대 네 밧디 세우고 가운데 이제 제라헌 전봇대 세와그네에. (불청) 들이창 그건 제라허게 기계도 잊고 허는 건디.

그 흐나 세우는 그 자리에 그 각구 낭 영 네 개나 세 개 세와. 영영 세우고 가운데 기겐가 뭐인가 요 기계로 세우고 허는디. 그것에 우리 아바진 밤이난, 새벽에 듬북허레 가는다. 듬북허단 동산에 올라오민 오는디. 아, 오단 보난, 영 허는 게 막 웨발 든은게 삿어. 게난 그거에 놀래네. 막 넉드리고 헤난디. 넉드리민 뭐 그 도체비렌 헌 게 뭐 심엉 승허는 건 아니라. 승허는 건 아닙니다 사름이 주워허 게 놀래민 넉낫젠 허멍 허는 거주게. 옛날 무신 술이나 훈 잔 먹고, 거딱거딱 뎅기는 사름은 거딱 안 헤. 므음이 곱게 뎅기당 줄락허게 놀래민 그게 벙이주게.

[조사자] 경 헹 넉드령 낫앗수과? 아버지는?

[제보자] 응. 넉드령 낫고. 뭐 이 배가 만약에 파산뒈민, 그때 집에 오랑 넉들여 불고 무시거 허민 좋은디. 내 불어. 게민 그때 파싹 죽어지카 부덴 겁이 나주게. 게민 이제 넉들이지 안 혀그네 내 불민 이제 그게 이 므음으로부떠 벙이 들어. 므음이 강 헹 딱 시끄럽다 헹 버려불민 어떻 안 혀는디.

‘아이고 난 놀래젖이카.’

우리 아바진 경 행 이젠, 거 뺀 놀래도 어떻 안 혔던 허고, 큰아바진 배에 갓
다네, 다 동서덜토 죽어불고 이녁 이제 혼자만 두 핸가 멋 헤 살아부나네, 넉드
리고 무신 에에 젊을 때난게.

“관계엇어. 관계엇어.”

허멍, 관계엇덴 허멍, 넉 안 들이고 네불민, չ으으으으 이제 혼 번이나 아파가
민 이녁 속으로 이녁 속으로

‘넉드려불걸. 넉드려 불 걸. 넉 아니 드려 부난 이제 내가 벵이 됮인가?’

몸이 약허민 벵이 웨부는 거라. 경 낭중에 정신 어질뢰네 미천. 우리 큰아버지
는 미치고 우리 아바진 꾸닥 안 현. 경 행.

‘아이고 그 따문에 죽어질 건가?’

‘경 혜부난 ㅎ끔이라도 더 아팠인가?’

영 행 그 몸이 약허민 벵 웨는 거라.

- 핵심어 : 도체비, 외발, 넉, 몸, 바당, 듬북, 새벽, 도깨빗불, 도깨비, 아버지, 넉드림